

제2강 - 헤라클레스 신화를 통해 알아보는 그리스 영웅

(1교시)

◆ 그리스연합군의 결성

※ 학습목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아군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간 영웅의 원형인 헤라클레스의 탄생에 대해 알아본다.

▲ 그리스 연합군의 결성

- 옛 맹세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그리스 연합군

크레타 섬에 장례를 치르러 갔던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오스가 자신의 왕국 스파르타로 돌아오자 아내 헬레네가 파리스와 트로이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헬레네가 납치된 것이라고 생각한 메넬라오스는 형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청한다. 아가멤논은 동생의 아내인 헬레네를 그리스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한다. 헬레네가 처녀시절에 수많은 구혼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오뒤세우스가 나서서 헬레네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여인을 위험에서 구하자고 맹세한다. 그 때의 영웅들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하게 된다.

- 준비 기간은 2년

그리스 연합군은 2년에 걸쳐 결성된다. 이렇게 2년 동안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리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영웅들을 한데 불러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트로이아를 정벌하려면 지중해를 건널 수 있는 배를 건조해야 했으며 군사들도 훈련시켜야 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으로 2년이 소요되었다.

▲ 그리스 연합군의 영웅들

그리스 연합군	트로이아군
아가멤논	프리아모스
아킬레우스	헥토르
오뒤세우스	파리스
메넬라오스	아이네이아스
아이아드	데이포보스
디오메데스	글라우코스
네스토르	사르페돈

- 총사령관 아가멤논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은 그가 훌륭한 왕이었거나 그의 용

맹함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그가 총사령관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부유한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었기 때문이다. 아가멤논이 다스렸던 미케네 왕국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황금문화를 이끈 부유한 폴리스였다. 그런 미케네를 다스렸던 아가멤논은 대단히 부유한 왕이었다. 병사들의 무장과 훈련, 배의 건조 등 전쟁준비를 하려면 가장 부유한 왕이 많은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아가멤논이 그리스연합군의 총사령관을 맡게 된 것이다.

- 전쟁을 피하려 했던 맹세의 장본인, 오뒤세우스

오뒤세우스는 대단히 지략이 뛰어난 인간 영웅으로 헬레네가 위협에 처하게 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주자는 혼인 전의 맹세를 이끌어냈던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뒤세우스는 그리스 연합군에 뒤늦게 참가하게 된다. 그리스연합군이 소집될 당시 그는 신혼인 아내 페넬로페와의 사이에서 이제 막 아들 텔레마코스가 태어난 때다. 오뒤세우스는 트로이아 전쟁이 빨리 끝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을 이타케왕국에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기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오뒤세우스는 전쟁참가를 계속 거부한다.

그러자 그리스 연합군 중에서 가장 나이 많았던 네스토르는 오뒤세우스를 참전시키기 위해서 이타케 왕국으로 향한다. 오뒤세우스는 네스토르를 그냥 돌려보내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하지만 지략이 뛰어난 네스토르에 의해 계략이 밝혀져 그리스 연합군에 참가하게 된다.

- 그 외 그리스 연합군의 영웅들

메넬라오스는 헬레네의 남편이자 스파르타의 왕이다. 디오메데스는 트로이아 전쟁 끝무렵 팔라디온이라고 하는 여신상을 오뒤세우스와 함께 훔쳐오는 인간의 영웅이다.

▲ 트로이아군의 영웅들

2년 동안 그리스연합군이 소집되었다면 이미 트로이아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리스연합군이 결성되는 기간 동안 트로이아군도 트로이아를 방어하기 위한 트로이아군을 결성한다.

그리스 연합군	트로이아군
아가멤논	프리아모스
아킬레우스	헥토르
오뒤세우스	파리스
메넬라오스	아이네이아스
아이아드	데이포보스
디오메데스	글라우코스
네스토르	사르페돈

- 트로이아의 성주 프리아모스

프리아모스왕은 트로이아의 성주다. 그는 대단히 지혜가 뛰어났고 덕망이 높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리아모스는 특별히 호메로스 『일리아드』 제 24권 마지막 권에 나오는 프리아모스의 간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기질이라든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다.

- 트로이아 연합군의 총사령관 헥토르

트로이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프리아모스왕의 장자 헥토르다.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프리아모스왕에게는 왕비와 후실들에게서 얻은 아들이 50명이 있었다고 『일리아드』에 기록되어있다. 헥토르는 프리아모스왕과 헤카베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이었다. 후실들까지 해서 그 모든 아들의 수가 5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딸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었지만 결국은 아킬레우스의 창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

순수한 인간의 아들인 헥토르는 신의 피가 흐르고 불사의 은혜를 받은 아킬레우스에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투를 벌인 것은 자신의 뛰어난 용맹성이나 영웅적 기질을 과시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헥토르마저도 아킬레우스를 피한다면 그 누구도 트로이아성과 주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킬레우스와 당당히 맞서는 인간적 영웅의 면모를 볼 수 있다.

- 트로이아 전쟁 발발의 장본인 파리스

파리스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마찬가지로 프리아모스와 헤카베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싹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데산에서 양을 치게 되고 황금사과 사건에 휘말려 결국 이 전쟁발발의 장본인이 된다.

- 로마의 조상 아이네이아스

트로이아 진영에 참전했던 영웅들 중 헥토르와 파리스 등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영웅들이지만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영웅이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앙키세스라고 하는 왕과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아성이 완전하게 함락되기 바로 직전, 절름발이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업고 트로이아성을 무사히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떤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 형제를 낳는다. 그래서 로마건국 신화에 의하면 이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 형제가 로마의 시조지만 그리스신화까지 올라가면 결국 로마의 조상은 아이네이아스라고 할 수 있다.

- 사르페돈은 그리스 연합군의 네스토르와 비슷한 연배에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다.

▲ 인간 영웅의 원형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영웅이 헤라클레스라는 데는 이견이 없

다. 헤라클레스는 인간 영웅의 원형이다. 그리스신화는 대단히 독창적인 신화로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영웅과 관련된 인간의 이야기들은 반드시 상징성이 있다. 신화시대에는 신화에 드러나 있는 영웅들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이상적인 인물과 삶의 모습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신화에서 헤라클레스신화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 헤라클레스는 누구인가

- Zeus와 Alcmene의 아들

- Heracles(Heracules)

 - Hera여신의 영광

 - (본명 - Alcides)

- 영웅의 원형

 - 인간의 용기와 힘, 주어진 조건에 대한 고난 극복, 죽음에 당면한 인간의 모습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인 어머니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알크메네는 암피티온 왕의 아내다. 로마에서는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영어로는 허큘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원래 이름이 알키데스였으나 나중에 헤라에 의해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가진다. 헤라클레스에서 hera는 헤라여신을 의미하고 cles는 고대 그리스어로 영광이란 뜻이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헤라여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다.

헤라클레스 신화는 영웅의 원형, 더 나아가서 인간의 원형에 관련된 인간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용기와 힘, 주어진 조건에 대한 고난 극복, 죽음에 대한 인간의 자세까지 헤라클레스 신화를 통해 볼 수 있다.

▲ 휴식을 취하고 있는 헤라클레스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되었던,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헤라클레스」라는 조각이다.

고대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조각이나 회화작품, 도자기 작품 중 이렇게 신이 아닌 인간을 전신상으로 묘사한 작품은 굉장히 드물다. 따라서 헤라클레스라는, 인간의 가장 뛰어난 영웅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제목처럼 나무기둥 같은 것에 기대서 몸을 잠깐 쉬고 있는 모습이

다. 그런데 앞에 놓인 것은 헤라클레스가 즐겨 사용했던 곤봉이다. 헤라클레스가 평소 즐겨 사용한 무기로 곤봉과 활, 화살을 들 수 있다.

▲ 헤라의 응징

- 배다른 자식은 용서하지 않는다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것을 제우스의 아내 헤라여신은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제우스의 배다른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으니, 헤라여신은 이 아이를 절대로 온전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헤라여신은 상대가 여신이든 요정이든 인간이든 간에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제우스의 배다른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 자식의 생명까지 앗아가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헤라여신이 그렇게 제우스가 사랑을 나누었던 대상들이나 배다른 자식들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이유는 헤라여신이 질투심이 강했던 여신이기 때문이 아니다.

▲ 가이아 여신의 응징

- 남편 우라노스를 거세

헤라여신은 혼인선물로 가이아로부터 황금사과를 선물 받았다. 이것은 가이아 여신의 면모를 헤라가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징표다. 가이아여신은 자애로움과 응징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소유한 여신이다. 가이아여신은 자신의 남편 우라노스를 막내아들 크로노스와 함께 힘을 합쳐서 거세했다. 사랑하는 남편을 거세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에게서 태어난 외눈박이 삼형제 퀴클롭스 3형제, 백수 삼형제라 얘기하는 헤카톤케레스 삼형제가 자신의 뱃속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었다. 남편 우라노스에 의해 갇힌 것이다. 가이아는 그것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거세한다.

- 아들 크로노스의 제왕자리를 박탈하다

남편을 거세할 때 도와주었던 것이 막내아들 크로노스였다. 가이아는 그 대가로 크로노스에게 신들의 제왕 자리를 준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크로노스가 했던 약속은 신들의 제왕이 되면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퀴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케레스 형제를 빛의 세계로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크로노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가이아는 그에게 ‘너 역시 네 자식들 중 하나에 의해서 너의 권좌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레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들을 모두 뱃속에 삼키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 어머니 레아에 의해 목숨을 구제하게 됐던 막내 제우스는 결국 나중에 메티스 여신의 도움으로 크로노스의 뱃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형제남매들을 구출한다. 그렇게 해서 힘을 상실한 크로노스는 더 이상 신들의 제왕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자 가이아는 자신의 손자뻘인 제우스에게 최고신의 자리를 주게 된다.

- 제우스에의 복수

그런데 제우스는 그 후 티타노마케이아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자신에게 도전했던 티탄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어둔다. 제우스는 가이아여신의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었던 외눈박이 삼형제들과 백수 삼형제들을 빛의 세계로 방면해주긴 했지만 이제 수적으로 훨씬 많은 가이아의 자식들, 즉 티탄신들을 모두 타르타로스에 가두게 된다. 그래서 가이아여신은 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 위에 떨어졌던 우라노스의 복수의 정기로부터 기간테스, 거인족들을 만들어냈다.

- 가이아이론, 부메랑 효과

가이아여신은 모든 것을 인내한다.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뱃속에 다시 가두어진 것까지 다 인내했다. 그러나 순리를 벗어난, 도를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하고 응징한다. 그리스 신화 전체를 통해 볼 때, 가이아와 관련된 이미지는 언제나 어떤가. 자애로운 어머니요 대지의 여신이다. 그러나 반드시 가이아여신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응징이라는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라고 인식해야한다.

이런 가이아의 면모에서 가이아 이론,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자연은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든지 모든 것을 참아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자연을 개발했던 인간의 행위가 이제 자연을 회복불능의 지경으로 만들자 이제는 자연자체가 생존을 보장해주는 대상이 아닌, 인간의 생존을, 실존을 목 조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한다.

▲ 신성한 결혼을 주관하는 헤라와 헤라클레스의 운명

가이아여신이 헤라에게 혼인선물로 황금사과를 주었다는 것은 가이아여신의 모든 면모를 물려받은 유일한 여신이 헤라라는 것이다. 헤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여신임과 동시에 도를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여신이다. 그리고 또 하나, 헤라여신은 신성한 결혼을 주관한다. 따라서 헤라여신이 제우스가 불륜상대나 배다른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은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하는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함이다.

헤라가 알키데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된 이상, 그 아이는 헤라여신의 응징을 받을 운명이 되었다.

제2강 - 헤라클레스 신화를 통해 알아보는 그리스 영웅

(2교시)

◆ 헤라클레스의 열두 가지 시험

※ 학습목표

헤라클레스에게 부과된 열두 가지 시험에 대해 알아본다.



▲ 헤라여신의 첫 번째 응징

헤라여신은 알키데스가 태어난지 9일째 되는 날(9-고난의 수)에 이 아이가 잠들어있는 요람에 독사 두 마리를 풀어놓는다. 물려 죽게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알키데스는 (뱀을 잡는 어린 헤라클레스-조각) 뱀을 잡아 목을 졸라 죽인다. 신화니까 가능한 얘기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영웅들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춘다. 신화시대뿐만 아니라 철학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라고 믿었다.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소멸하지만 육체는 불멸이라 믿는 영혼불멸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 격언 - '죽음은 곧 잠이다') 그리스 인들은 인간의 조건에서 영혼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도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 먼저 신체적 강인함이다. 그리고 동시에 영혼과 관련된, 즉 지적 탁월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 신화에서 절대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의 영웅들은 지적인 면이 중시된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수호신은 아테나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나자마자 뱀을 목졸라 죽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물린 헤라

그렇게 목숨을 구했지만 헤라여신의 두 번째 응징이 준비되어있다. 그때 헤르메스가 도움을 준다. 제우스의 아들이므로 보호한 것이다. 헤르메스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헤라여신이 주로 산책을 하는 올림푸스 신궁의 길목에 어린 알키데스를 데려다놓는다. 만나질

이 지나자 알키데스는 배가 고파 울음을 터트린다. 때마침 지나던 헤라여신은 인간 아이의 가엾은 모습을 보고 가이아로부터 받은 모성애를 발휘해 품에 안고 자신의 젖을 물린다. 그래서 알키데스는 배불리 헤라의 젖을 먹고 배가 부르자 입을 떼다.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셸던 알키데스의 젖빠는 힘이 얼마나 셸던지 헤라여신의 젖이 그치지 않고 뿔어져 나왔다. 헤라여신의 젖은 올림포스 신궁, 하늘에 뿌려지고 일부는 땅에 떨어졌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때 하늘에 뿌려진 헤라여신의 젖이 은하수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땅에 떨어진 젖으로부터는 우윳빛의 꽃, 백합이 피어난다. 그래서 헤라여신을 상징하는 꽃은 백합이고, 신성한 결혼을 주관하는 헤라를 상징하는 꽃이므로 결혼식 부케에는 백합이 들어갔다고 한다.



Via Lactea(은하수)의 기원

* cerelac(이유식 상표) cere 곡물 lac 우유 cerelac은 곡물+우유

공작이 있는 것으로 헤라여신임을 알 수 있다. 독수리로 보아 아이를 안고 있는 신은 제우스다. 왜 헤르메스가 아닌 제우스인가. 제우스가 배다른 자식 알키데스를 헤라에게 데려다가 젖을 주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그림은 이 아이가 제우스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제우스로 그린 것이다.

▲ 헤라클레스에게 내려진 열두 가지 시험

헤라는 자신의 젖까지 먹이게 된 이상 알키데스를 죽이지는 않는다. 대신 에우뤼시테우스라는 인간의 왕의 부하가 되어 열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12는 완전한 수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헤라클레스는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헤라여신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던 헤라클레스는 헤라여신의 젖을 먹게 되고 열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헤라여신으로부터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

이 12가지 시험은 모두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알키데스는 죽음으로 갈아야 한다. 에우뤼시테우스 왕은 헤라를 대신해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첫 번째 시험 - 네메아의 식인사자 퇴치



첫 번째 시험은 네메아 골짜기의 사자를 퇴치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그곳엔 지나던 여행자를 잡아먹는 식인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식인사자를 제압하게 되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식인사자의 가죽을 벗겨 망토처럼 걸치고 다닌다.

▲ 두 번째 시험 - 히드라 퇴치



히드라는 머리가 아홉 달린 물뱀이다. 그 중의 하나의 머리는 불사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8개의 머리를 자르지만 잘린 자리에서 머리가 두 개씩 다시 자란다. 그래서 머리가 17개가 된다. 헤라클레스는 새로 돌아난 16개의 머리는 불로 태워버리고 불사의 머리는 큰 바위로 눌러서 제압했다.

* 영화 해리포터 2탄에서 지하동굴에 살았던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히드라가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다.

▲ 다섯 번째 시험 -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 청소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에는 황소만 3천 마리가 있었다. 거기에다 떨어진 암소와 송아지를 합치면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외양간인 것이다. 게다가 3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다. 헤라클레스는 알페이오스강과 페네이오스강의 지류를 바꿔 외양간을 씻어낸다. 이 부분에서 헤라클레스의 지적 탁월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치수(治水)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시사한다.

▲ 아홉 번째 시험 - 아마존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



아마존Amazon은 A-mazos에서 유래했다. 고대그리스어에서 제일 앞에 알파A를 붙으면 다 음 말이 부정된다. mazos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젖가슴을 뜻한다. 따라서 A-mazos는 한쪽 의 가슴이 없는 것을 뜻하고 아마존은 그런 부족을 뜻한다. 이 아마존 여전사들은 호전적인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여아의 젖가슴을 단단한 가죽끈으로 동여매 발육을 억제하고 심한 경 우에는 도려내기까지 했다. 활쏘는게 가슴이 방해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전투력과 여인으 로서의 아름다움을 바꿀 정도로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웠다. 헤라클레스는 아마존 부족 속으 로 들어가 용맹한 아마존 여전사들과 전투를 치른 후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온다.

▲ 열한 번째 시험 - 헤스페로스의 황금사과



아틀라스를 대신해서 지구를 떠받치는 헤라클레스와 그를 돕는 아테나

열한 번째 시험은 가이아의 혼인선물인 헤라의 황금사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헤라여신은 그것을 헤스페로스 여신에게 간수하도록 했다. 헤스페로스는 새벽의 여신이며 아틀라스의

딸이다. 헤스페로스는 잠들지 않는 용에게 황금사과를 맡긴다.

참고) 동양의 용 - 영물

서양(그리스 신화)의 용 - 괴물 ex)반지의 제왕

헤스페로스(셋별)와 용이 함께 지킨다는 것은 이 황금사과가 하늘에 위치해있다는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다. 헤라클레스는 헤스페로스 대신 그 아버지, 티탄신들의 선봉에 선 죄로 지축을 받치는 벌을 받고 있는 아틀라스에게 찾아가 잠시 지구의 지축을 대신 메고 있겠다고 하고 보답으로 황금사과를 받는다. 헤라클레스의 지적 탁월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 열두 번째 시험 -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라

마지막 열 두 번째 시험은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것이다.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셋 달린 삼두견으로 하데스hades(대문자 H는 신 소문자는 지하세계, 저승) 입구, 지옥의 문 입구를 지키는 개다. 하데스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어떤 영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감시견이다.



케르베로스

* 머리가 셋 달려 있다.

참고)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한 케르베로스와 숫자 3의 의미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에서 교장선생이 신입생에게 들어가선 안 된다고 하는 방이 있다. 해리포터일당 세명 그리스에서 3은 안전수 (3총사) 거기 케르베로스가 있었음 지하세계로 뭔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음.

하데스 입구를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산채로는 갈 수 없다. 그러나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헤라클레스는 하데스까지 가게 된다. 하데스까지는 물방울이 9일 밤낮으로 떨어지는 거리로 오늘날 계산에 의하면 지표면에서 지구 핵까지의 거리와 같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구의 깊이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다. 우연으로 추정됨)

헤라클레스가 하데스에게 목적을 말하자 하데스는 케르베로스를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데려가라고 허락한다. 그는 케르베로스를 제압해서 지상으로 데려와 심판관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보여준다. 왕은 너무 놀라서 항아리에 숨는다. 이렇게 마지막 열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헤라여신에게 가장 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받는다.

제2강 - 헤라클레스 신화를 통해 알아보는 그리스 영웅

(3교시)

◆ 헤라클레스의 최후와 그리스 영웅의 특징

※ 학습목표

헤라클레스의 신화의 여러 가지 의미와 영웅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본다.

▲ 신을 죽인 인간 - 아켈로스와의 대결



헤라클레스와 아켈로스

헤라클레스는 열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 헤라클레스의 이름을 받은 다음 데이아네이라와 혼인한다. 그 전에 데이아네이라를 놓고 아켈로스라는 강의 신과 대결을 벌인다. 아켈로스는 상대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황소로 변신해서 대결한다.(도자기)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이전에 3천 마리의 황소를 상대했던 인물이다. 당연히 아켈로스가 패해 뿔이 부러지고 그리스 신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간에 의한 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 신을 도운 인간 - 헤라클레스 신화가 시사하는 것

제우스가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기 전 벌인 세 번의 치열한 전쟁 중 기간테스들과의 전쟁은 올림푸스 신들이 일방적 열세였다. 그때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예언이 내려진다. 그 때 참전한 것이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다. 헤라클레스는 거인족의 대장을 활로 쏘아죽이고 아버지에게 승리를 바친다. 기간토마케이아 Gigantomacheia 에서도 자신의 참전으로 신들에게 승리를 바친다. 이 두 가지 신화는 인간의 지적인 반석이 높은 경지까지 와야만 가능하다. 신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였는데 인간의 지성이 깨어난 계몽된 시기의 신화다.

▲ 코르누코피아와 강의 신 제압의 의미

헤라클레스는 아케로오스를 제압한 후 황소의 뿔은 하천바닥에 던지고 떠난다. 강 속에는 반드시 강의 신을 수호하는 님프가 있다. 아케로오스가 다스리던 강의 요정들, 자신들이 주인으로 모신 신을 인간에게 잃은 그들은 부러진 황소 뿔을 가지고 가 신전에 바친다. 황소 뿔은 고대어로 Cornu다. 신전에 바쳐진 황소 뿔은 그 안에 과일을 담아 Copia 여신, 풍요의 여신에게 바친다. 이렇게 코르누코피아Cornucopia가 만들어진다. 풍요의 뿔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신화의 화수분처럼 퍼내도 퍼내도 줄지 않는다. 헤라클레스가 강의 신을 제압했다는 것은 인간의 치수가 완성되었던 시점이라는 것도 말한다. 강의 신에 의해 풍요의 뿔이 된 건 하천 유역의 비옥함과 연결될 수 있다.

▲ 네소스의 음모

데이아네이라와 혼인해서 살아가던 중, 결혼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헤라클레스 부부는 여행길에 오른다. 여행길에서 그들은 강을 만나는데 켄타우로스인 네소스가 와 데이아네이라를 자신의 등에 태워서 건네주겠다고 한다.



Deianeira를 납치하려는 Nessos

참고) 고대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마

종류	능력	특징
켄타우로스	반인반마중 가장 뛰어남 (신보다는 못함)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 하반신은 말의 모습
사티로스	반인반마중 중간	인간의 모습과 닮았으나 뿔이나 굽을 가지고 있음
판	반인반마중 가장 떨어짐 (인간보다는 뛰어남)	인간의 모습과 닮았으나 꼬리가 있음
반인반마는 신과 인간의 중간자적 존재		
필멸의 삶, 죽는 운명으로 신이 될 수 없다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를 등에 태우자마자 강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달아난다. 그는 데이아네이라의 아름다움에 끌려 납치하려고 접근했던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쏘아 네소스의 심장을 맞춘다.



헤라클레스와 네소스

* 실제로는 칼이 아닌 화살로 죽음

네소스는 죽어가면서 데이아네이라에게 자신의 피를 받아서 보관하면 헤라클레스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줄때 그 마음을 다시 돌리는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데이아네이라는 그 말을 듣고 네소스의 피를 받아 간직한다.

그 후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올레라는 여인을 전리품으로 취해 데리고 오고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의 마음이 떨어진 것에 위기를 느낀다. (헤라클레스는 트로이아 전쟁 빼고 거의 모든 전쟁에 참전한다. 실제로 참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 전쟁을 다 치렀다면 350살을 넘어야 한다고 한다. 뛰어난 영웅이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온 헤라클레스는 전쟁에서 무사히 공을 세우고 돌아오게 해준 신들, 아버지 제우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데이아네이라에게 예복을 준비시킨다.

▲ 고대그리스의 제례

고대 그리스의 기본 제례에는 송아지, 어린 양 등 흠 없는 어린 동물을 제물로 쓴다. 이런 어린 동물들이 희생 제물로 쓰이는 것은 태어나서 아직 인간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채찍을 맞은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큰 황소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채찍질 당하지 않았다면 제물로 사용가능하다. 희생물은 인간에게 고통당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제물이 준비되면 제단에서 그 피를 뿌린다. (감사와 기복의 의미) 모든 종교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 제례는 신과 합일하기 위한 목적 - 깨끗해야 한다. 신의 입장에 보면 인간은 언제나 나약하고 죄를 짓는, 신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다. 제물의 피를 제단주의에 뿌리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는, 나를 대신하는 피라는 의미다. 피를 뿌리고 남겨진 고기는 장작불에 태워 올린다. 흡향제라고 한다. 향기를 신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은 하늘에 사는 불멸의 존재로 인간들의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신들은 천상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취하고 그럼

으로써 불멸의 삶을 산다. (만일 그것들을 섭취 못하면 불멸이라 죽지는 않지만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간다. 스틱스강에 걸고 한 맹세를 어기면 9년동안 섭취할 수 없다.)

피가 뿌려진 희생제물을 장작에 태워서 연기만 올리는 이유는 신들은 인간의 땅에서 길러 지거나 만들어진 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 헤라클레스의 죽음



헤라클레스의 죽음

데이아네이라는 네소스의 유언을 떠올리고 예복에 네소스의 피를 뿌린다. 헤라클레스가 그것을 걸치자 복수의 정기를 담은 네소스의 피는 헤라클레스의 혈관을 타고 독이 되어 퍼진다. 헤라클레스는 예복을 얼른 벗으려 하지만 이미 그것은 살과 붙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자 살점도 찢겨나가 만신창이로 전락한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초라해진다는 것 시사)

헤라클레스는 이제 영웅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제물로 올라간다. 그리고 시종인 필록테테스를 시켜 불을 붙이게 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준 대가로 활과 화살을 선물로 준 후 떠난다. (헤라클레스의 활→훗날 트로이아 전쟁을 끝내는데 사용)



올림포스로 올라간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인간의 소망은 죽어서 별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삶이 다하자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여신(가운데)에 의해 올림포스 신궁에 올라가 아버지 제우

스를 만나게 된다. 제우스는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산 헤라클레스를 별자리, 헤라클레스좌가 되게 한다.

▲ 헤라클레스 신화를 통해서 본 영웅의 일반적 특징

■ 일상적이지 않은 출생

■ 영웅적 삶을 살기 이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모험을 통한 검증

→제우스가 탄생에서의 고난과 신의 제왕이 되기 이전 겪었던 모험이 영웅적 삶에 투사된 것

■ 명예와 죽음에 대한 초월

그리스 영웅들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신체적 탁월함 + 지적 탁월함) 모두를 갖춰야 함

- 그리스인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